

정답과 해설

- **본책** 정답과 해설 34
- **어휘력** 다지기 정답과 해설 45

확인 문제

01 회 논리 1

13쪽

- | | | | |
|---------|---------|---------|-------|
| 01 도출 | 02 매개 | 03 논증 | 04 경향 |
| 05 부합 | 06 비평 | 07 ㉔ | 08 ㉑ |
| 09 인지상정 | 10 생로병사 | 11 희로애락 | |

01~03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뜻한다.

04 과거에 비해 평균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경향'이 들어갈 수 있다. '경향'은 '현상이나 사상, 행동 등이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을 뜻한다. '관점'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을 뜻한다.

05 국민 투표는 민주 정치의 근본이념에 잘 맞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부합'이 들어갈 수 있다. '부합'은 '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을 뜻한다. '반영'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을 뜻한다. 빈칸에 '반영'이 들어가려면 그 앞에 '근본이념을'이라는 형태의 구절이 와야 한다.

06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비평'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비평'은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등을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을 뜻한다. '반박'은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등에 반대하여 말함'을 뜻한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고 반대하여 말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반박'이 들어가는 것은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07 서로 반대 관계에 놓인 주장에 대해 다른 문장이므로 ㉔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또한, 제시된 문장에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관한 내용이 나오므로 이를 통해서도 뜻을 유추할 수 있다.

08 험준한 산악을 활동의 중요한 지점으로 삼아 방어 준비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㉑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거점'은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을 뜻한다. ㉔의 뜻은 주로 '주장의 근거', '근거를 대다'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11 '희로애락'에서 '성낼 怒'는 본래 음이 '노'이지만,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로'로 읽는다. '희노애락'은 잘못된 표현이다.

02 회 논리 2

19쪽

- | | | | |
|-------|-------|-------|-------|
| 01 편중 | 02 입증 | 03 진술 | 04 수립 |
| 05 요소 | 06 판단 | 07 주관 | 08 주체 |
| 09 ㉒ | 10 ㉓ | 11 ㉔ | |

01 '우려'는 '근심하거나 걱정함'을 의미한다.

02 '실재'는 '실제로 존재함'을 뜻한다.

03 '집약'은 '한데 모아서 요약함'을 뜻한다.

04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세워진 곳이므로 '수립'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수립'은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등을 이룩하여 세움'을 뜻한다.

05 환경적인 조건이 사람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므로 '요소'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요소'는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등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근본 조건'을 뜻한다.

06 외모를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므로 '판단'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잣대'는 '자로 쓰는 대막대기 등을 뜻하며,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의거하는 기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판단'은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을 뜻한다. '안목'은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을 뜻한다.

08 '주체'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을 뜻하기도 한다.

10 '경당문노'는 '농사일은 의당 머슴에게 물어보아야 함'이라고 풀이한다.

11 '천리일실'은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고 풀이한다.

03 회 철학 1

25쪽

- | | | | |
|-------|-------|-------|--------|
| 01 망각 | 02 고찰 | 03 소신 | 04 범주 |
| 05 비판 | 06 성찰 | 07 실현 | 08 교조적 |
| 09 ㉑ | 10 ㉒ | 11 ㉔ | |

04 식물을 몇 가지로 묶는다고 하였으므로 같은 성질끼리 묶인 범위를 의미하는 '범주'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범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를 뜻한다.

05 '모순'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치상 맞지 않는 것을 다룰 때는 그 일의 잘잘못을 따져 밝히거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판'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비판'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06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반성해야 하므로 '성찰'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성찰'은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을 뜻한다.

07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년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므로 '실현'이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실현'은 '꿈, 기대 등을 실제로 이룸'을 뜻한다. '실증'은 '실제로 증명함'이라는 뜻이다.

08 자신의 말이 불변의 진리인 듯 자기만 믿으면 된다는 태도로 보아 '교조적'이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교조적'은 '역사적 환경이나 구체적 현실과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것'을 뜻한다. '근원적'은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11 '좌불안석'은 '앉아 있어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음'이라고 풀이한다.

11 소설 속에 인생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나 생각 등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므로 '통찰'이 어울린다. '통찰'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을 뜻한다. '의존'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을 의미한다.

12 법률이나 정책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존엄성'이 어울린다. '존엄성'은 '감히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성질'을 뜻한다. '지성'은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15 '유구무언'은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16 '타산지석'은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은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4회	철학 2	31쪽
01~09	해설 참조	10 지향 11 통찰
12 존엄성	13 인식	14 체계 15 유구무언
16 타산지석		

01~09

	01 형				04 필
	02 이	념			연
03 표	상		05 정	당	성
	학				
06 의				08 윤	
07 지	각		09 진	리	

10 그녀는 이상을 따르는 이상주의자라는 의미이므로 '지향'이 어울린다.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을 뜻한다. '직관'은 '판단, 추리 등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뜻한다.

05회	역사	37쪽
01 당대	02 관료	03 세습 04 반란
05 추세	06 교역	07 사료 08 출세
09 민생	10 부화뇌동	11 호시탐탐

01 장영실은 그 시대 최고의 과학자였다는 의미에서 '당대'가 들어갈 수 있다. '당대'는 '일이 있는 바로 그 시대'를 뜻한다.

02 임금이 부패한 어떤 대상을 척결한다는 내용이므로 '관료'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관료'는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의 집단'을 뜻한다. '비리'는 '올바른 이치나 도리에서 어그러짐'을 뜻하고, '척결'은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을 뜻한다.

03 정부가 부의 불법적인 대물림을 방지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세습'이 들어갈 수 있다. '세습'은 '한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등을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을 뜻한다.

04~06 '재현'은 '다시 나타남 또는 다시 나타냄'을 뜻한다.

07 유적 발굴을 통해 역사적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사료'가 어울린다. '사료'는 '역사 연구에 필요한 문헌이나 유물'을 뜻한다. '서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음'을 뜻한다.

08 삼촌이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므로 사회에서 성공했다는 의미의 '출세'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출세'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됨'을 뜻한다. '풍토'는 '①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 ② 어떤 일의 바탕이 되는 제도나 조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9 국회에서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는 의미에서 '민생'이 어울린다. '민생'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를 뜻한다. '치안'은 '나라를 편안하게 다스림'을 뜻한다. '문물'은 '문화의 산물. 곧 정치, 경제, 종교, 예술, 법률 등의 문화에 관한 모든 것'을 뜻한다.

06 회 예술				43쪽
01 영향	02 대비	03 음색	04 기법	
05 창작	06 피사체	07 합성	08 가락	
09 강호지락	10 요산요수	11 음풍농월		

04 '상감'은 '금속이나 도자기, 목재 등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 은, 자개 등을 박아 넣는 공예 기법'이다. '기법'은 '기교를 나타내는 방법'을 뜻한다. '구도'는 '그림에서 모양, 색깔, 위치 등의 짜임새'를 뜻한다.

05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소설들을 통해 그 시대상을 엿본다는 의미이므로 '창작'이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창작'은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지어냄'을 뜻한다. '조형'은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듦'을 뜻한다.

08 '가락'은 '소리의 높낮이가 길이나 리듬과 어울려 나타나는 음의 흐름'을 뜻하기도 한다.

10 '요산요수'의 '요(樂)'는 결합하는 어휘에 따라 '즐거울 락', '노래 악', '좋아할 요'라는 뜻과 음으로 다양하게 쓰인다.

11 '음풍농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을 뜻한다.

07 회 법률 1				49쪽
01 권익	02 과실	03 법인	04 대안	
05 고지	06 계약	07 ㉠	08 ㉡	
09 ㉢	10 ㉣	11 ㉤		

01~03 '공시'는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그렇게 알리는 글'을 뜻한다.

04 시민들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였다는 의미에서 '대안'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대안'은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을 뜻한다.

05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을 알렸다는 의미에서 '고지'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고지'는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을 뜻한다.

06 두 회사가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의미에서 '계약'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계약'은 '①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②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을 뜻한다. '범위'는 '①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 ② 어떤 것이 미치는 한계'를 뜻한다.

07 두 나라의 정치 체제를 비교했을 때 서로 비슷하거나 다른 점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의 뜻은 '법적 대응', '신속한 대응'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8 마라톤 선수들이 어떤 지점을 지나 되돌아간다는 내용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의 뜻은 '반환 소송', '예치금 반환' 등과 같은 형태로 쓰여 어떤 대상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08 회 법률 2			55쪽
01~07 해설 참조	08 절차	09 손실	
10 양도	11 위임	12 여건	13 사안
14 후회막심	15 망양보뢰		

01 승	02 소			03 입	법
	유			장	
	권		04 유		
		05 이	해	관	계
06 상		행			
07 소	송				

08 '의결'은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을 뜻한다.

09 '분쟁'은 '말쟁을 일으키어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툼'을 뜻한다.

10 '손해'는 '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밋집 ② 해를 입음'을 뜻한다.

11 선생님께서 반 임원회에 체육 행사 계획을 맡기셨다는 의미에서 '위임'이 들어갈 수 있다. '위임'은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김'을 뜻한다.

12 회사의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졌다는 의미에서 '여건'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여건'은 '주어진 조건'을 뜻한다.

13 정보 유출은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일이므로 '사안'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사안'은 '법률이나 규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을 뜻한다.

14 '후회막심'은 '더할 나위 없이 후회스러움'을 뜻한다.

15 '망양보퇴'는 '이미 어떤 일을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원래는 양을 잃은 뒤에 우리를 고쳐도 늦지 않으니 어떤 일을 실패해도 빨리 수습하면 괜찮다는 뜻이었다가 의미가 변화하였다.

09회		법률 3	61쪽	
01 조항	02 체결	03 판결	04 X	
05 ○	06 패소	07 특허	08 합의	
09 ㉠	10 ㉡	11 ㉢		

04 '해지권'은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06 소송에서 저서 벌금을 낸 것이므로 '패소'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패소'는 '소송에서 짐'을 뜻한다. '징벌'은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 데 대하여 벌을 줌'을 뜻한다. 이 문장에서, '징벌'이 '하어'라는 어미와 붙으면 소송을 낸 당사자가 징벌하였다는 의미가 되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07 우리 회사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그 소재의 사용 등에 관한 권리를 따냈다는 의미이므로 '특허'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특허'는 '공업 소유권의 하나로, 특허법·실용신안법 등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 등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을 뜻한다. '주권'은 '① 가장 주요한 권리 ②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뜻한다.

08 두 회사가 제품 개발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이므로 '합의'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합의'는 '서로 의견이 일치함'을 뜻한다. '집행'은 '실제로 시행함'을 뜻한다. '집행'은 이미 정해진 내용을 시행하는 것인데, 정해진 내용에 따라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다.

11 '결초보은'은 '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이라고 풀이한다. 중국 진(晉)나라 때 위과(魏顆)의 아버지가 죽으며 서모(庶母)를 함께 묻어 달라고 하였으나 위과가 어기고 서모를 살려 주었는데, 훗날 싸움터에서 서모 아버지의 혼령이 풀을 묶어 적군을 넘어뜨려 위과가 공을 세우도록 하였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10회		경제 1	67쪽	
01 거시	02 분기	03 보증	04 비용	
05 대출	06 공급	07 공유	08 금리	
09 득의양양	10 출장입상	11 부귀영화		

01-03 '미시'는 '작게 보임 또는 작게 봄'을 뜻한다.

04 물건 등을 생산할 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다. '비용'은 '어떤 일을 하는 데 드는 돈'을 뜻한다. '금부'는 '① 재물 등을 대어 줌 ② 법률상에서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뜻한다.

05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대출'이 어울린다. '대출'은 '돈이나 물건 등을 빌려주거나 빌림'을 뜻한다. '산출'은 '계산하여 냄'을 뜻한다.

06 건축 기자재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아 공사가 늦어졌다는 내용이므로 '공급'이 들어가야 어울린다. '공급'은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등을 제공함'을 뜻한다. '급등'은 '물가나 시세 등이 갑자기 오름'을 뜻하는 말로, '급등이 원활하지 못하여'라는 말은 호응이 맞지 않는다.

11회		경제 2	73쪽	
01 침체	02 환율	03 증대	04 소득	
05 예산	06 자산	07 X	08 ○	
09 천변만화	10 팔목상대	11 작비금시		

01 경기 불황으로 주식 시장이 좋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침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침체'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을 의미한다.

02 은행에서 한화를 외화로 환전할 때는 '환율'에 따라 해 준다. '환율'은 '자기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을 뜻한다.

03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도시의 문화나 생활 형태 등이 해당 지역에 반영되어 공공시설 확대, 인구 밀도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문맥상 '증대'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증대'는 '양이 많아지거나 규모가 커짐'을 뜻한다.

04 '원금'은 '꾸어 주거나 맡긴 돈에 이자를 붙이지 않은 돈'을 뜻한다.

05 '협약'은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국가와 국가 사이 등에서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음 또는 그 조약'을 뜻한다.

06 '채권'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07 '통화'는 '유통 수단이나 지불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화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에 투자한 돈'은 '자본금'이다.

08 '신용'은 '사람이나 사물이 틀림없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음'을 뜻하기도 한다.

10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봄'이라고 풀이한다. 중국 오(吳)나라의 장수 손권(孫權)이 자신의 부하 여몽(呂蒙)에게 학문을 깨우칠 것을 충고하자, 여몽이 쉬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여 훗날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12회 정치·문화				79쪽
01 기원	02 암묵적	03 제안	04 단절	
05 집합	06 전파	07 ㉠	08 ㉡	
09 ㉠	10 ㉢	11 ㉣		

04 폭설이 원인이 되어 외부와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 '단절'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단절'은 '흐름이 연속되지 않음'을 뜻한다.

05 운동장에 모인 학생들이 체육 대회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는 의미에서 '집합'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집합'은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임'을 뜻한다.

06 르네상스 운동이 유럽의 여러 나라로 퍼져 나갔다는 의미에서 '전파'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전파'는 '전하여 널리 퍼뜨림'을 뜻한다. '화제'는 '㉠ 이야기의 제목 ㉡ 이야기할 만한 재료나 소재'를 뜻한다.

07 화재 진압을 위해 많은 소방관을 화재 현장에 배치한 것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의 뜻은 '동전 투입' 등과 같이 주로 기계 등에 물건이나 물질 등을 던져 넣는 경우에 쓰이며, ㉡의 뜻은 '병력 투입', '자본 투입' 등과 같이 어떤 일이나 상황에 사람이나 자본 등을 대는 경우에 쓰인다.

08 양국에 앞으로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의 뜻은 주로 실제 건축물의 토대를 의미하며, 어떤 일의 밑바탕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는 ㉡의 뜻에 해당한다.

13회 생명 과학·의학				85쪽
01 장기	02 방역	03 공생	04 세포	
05 감염	06 배출	07 X	08 ○	
09 ○	10 백년해로	11 결의형제		

01~03 '복제'는 '㉠ 본디의 것과 똑같은 것을 만들 또는 그렇게 만든 것 ㉡ 원래의 저작물을 재생하여 표현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04 사람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세포'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세포'는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다. '숙주'는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생물'을 뜻한다.

05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침투당하기 쉽다는 의미에서 '감염'이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감염'은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을 뜻한다. '염기'는 '산과 반응하여 염을 만드는 물질'이다.

06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줄었다는 의미이므로 '배출'이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을 뜻한다. '증식'은 '늘어서 많아짐'을 뜻하는 말로, 문장 끝부분에 쓰인 '줄었다'라는 말과 호응하지 않는다.

07 '대사'는 '생물체가 섭취한 영양물질을 분해·합성하여 필요한 물질이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뜻한다. '생물체의 원형질과 그 부수물의 양이 늘어나는 일'을 뜻하는 어휘는 '생장'이다.

08 '유전'은 '물려받아 내려옴 또는 그렇게 전해짐'을 뜻하기도 한다.

14회 물리학

91쪽

- 01 분포 02 분자 03 부력 04 가속도
 05 다량 06 열효율 07 점성 08 유체
 09 위국총질 10 사군이충 11 견마지로

01 명태가 주로 북태평양에 널리 퍼져 서식한다는 의미에서 ‘분포’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분포’는 ‘동식물의 지리적인 생육 범위’를 뜻한다. ‘흡수’는 ‘빨아서 거두어들임’을 뜻한다.

02 물은 하나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이다. ‘분자’는 ‘물질에서 화학적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를 뜻한다. ‘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의 단위’이다.

03 열기구는 열을 이용하여 대기 중에 높게 떠오르도록 만든 기구이므로 ‘부력’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부력’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重力)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을 뜻한다. ‘저항’은 ‘물리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뜻하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04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동차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내용이므로 ‘가속도’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가속도’는 ‘물리에서, 단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을 뜻한다.

05 공장 폐수에서 많은 양의 중금속 물질이 나왔다는 의미에서 ‘다량’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다량’은 ‘많은 분량’을 뜻한다.

06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효과가 뛰어난 보일러 사용을 권장했을 것이므로 적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하여 많은 열을 낼 수 있는 보일러라는 의미에서 ‘열효율’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열효율’은 ‘기관에 공급된 열이 유효한 일로 바뀐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10 ‘세속 오계’는 ‘신라 화랑의 다섯 가지 계율’로, 사군이충(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김), 사친이효(효도로써 아버이를 섬김), 교우이신(믿음으로써 벗을 사귀), 임전무퇴(전쟁에 나아가서 물러서지 않음), 살생유택(생물을 죽이기를 함부로 하지 말고 가려서 해야 함)을 이른다.

15회 화학·지구 과학

97쪽

- 01 시료 02 운행 03 이온 04 ○
 05 ○ 06 X 07 살균 08 농도
 09 연쇄 10 만고천추 11 낙목한천

01 ‘시료’는 ‘시험, 검사, 분석 등에 쓰는 물질이나 생물’을 뜻한다. ‘효소’는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되어 생체 속에서 행하여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촉매 구실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02 ‘운행’은 ‘정하여진 길을 따라 차량 등을 운전하여 다님’을 뜻한다. ‘공전’은 ‘한 천체(天體)가 다른 천체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도는 일’을 뜻한다.

03 ‘이온’은 ‘전하를 띠는 원자 또는 원자단’을 뜻한다. ‘세균’은 ‘생물체 가운데 가장 미세하고 가장 하등에 속하는 단세포 생활체’이다.

06 ‘산화’는 ‘물질 중에 있는 어떤 원자의 산화수가 증가하는 일’을 뜻한다. 제시된 설명에 해당하는 어휘는 ‘환원’이다.

07~09 ‘지질’은 ‘생물체 안에 있는, 물에 녹지 않고 유기 용매에 녹는 유기 화합물’을 뜻한다.

10 ‘만고천추’는 ‘매우 오래되고 긴 세월’이라고 풀이한다. ‘추(秋)’는 원래 ‘가을’을 뜻하지만, 계절이 변화하며 지나간 ‘세월’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

16회 기술 1

103쪽

- 01~06 해설 참조 07 고유 08 검출
 09 도달 10 미세 11 우왕좌왕 12 혼비백산
 13 천방지축

01~06

01	광	각			02	강	
	학			03	반	도	체
04	단	자			06	구	조
	말					현	
05	기	준	치				

07 한복은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입어 온 민족 특유의 의상이라는 의미에서 ‘고유’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고유’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유한 것’을 뜻한다.

08 오래된 고기를 검사한 결과, 세균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의미에서 '검출'이 들어갈 수 있다. '검출'은 '화학 분석에서, 시료(試料) 속에 화학종이나 미생물 등의 존재 유무를 알아내는 일'을 뜻한다.

09 오랜 협상 끝에 두 단체가 합의점에 이르렀다는 의미에서 '도달'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도달'은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을 뜻한다.

10 현미경은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하여 보는 기구이다. '미세'는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음'을 뜻한다.

11 비상벨이 울린 후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므로 당황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동작을 뜻하는 성어가 들어가는 것이 어울린다. '우왕좌왕'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나 나아가는 방향을 잡지 못함'을 뜻한다.

12 아군의 공격에 놀란 적군이 정신없이 달아났다는 내용이므로, '혼비백산'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이다.

13 늦잠을 잔 동생이 지각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준비하여 서둘러 나갔다는 의미이므로 '천방지축'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천방지축'은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땀'을 뜻한다.

17회 기술 2				109쪽
01 왜곡	02 복원	03 성능	04 보정	
05 장치	06 X	07 ○	08 ○	
09 내우외환	10 전후곡절	11 진퇴유곡		

01 문장 뒤쪽의 비판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아 앞에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관한 내용이 나옴을 유추할 수 있다. 학자들이 일본의 잘못된 역사 해석이나 비논리적인 주장을 비판하였다는 의미에서 '왜곡'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뜻한다.

02 훼손된 문화재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의미에서 '복원'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함'을 뜻한다.

03 새롭게 출시된 보일러의 성질과 기능이 기존 제품에 비해 좋아졌다는 의미에서 '성능'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성능'은 '기계 등이 지닌 성질이나 기능'을 뜻한다.

04 '변환'은 '달라져서 바뀔 또는 다르게 하여 바뀔'을 뜻한다.

05 '연산'은 '식이 나타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계산함'을 뜻한다.

06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봄'을 뜻한다. '주어진 정보를 어떤 표준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거꾸로 변환함'을 뜻하는 어휘는 '부호화'이다.

18회 기술 3				115쪽
01 전류	02 추출	03 전압	04 측정	
05 추적	06 제어	07 제약	08 회피	
09 ㉠	10 ㉡	11 ㉢		

01~03 '출력'은 '㉠ 엔진, 전동기, 발전기 등이 외부에 공급하는 기계적·전기적 힘 ㉡ 컴퓨터 등의 기기(機器)나 장치가 입력을 받아 일을 하고 외부로 결과를 내는 일'을 뜻한다.

04 '제온'은 '측정'과 호응하는 어휘이다. '측정'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잴'을 뜻한다. '측량'은 '지표의 각 지점 위치와 지점 간의 거리, 지형의 높낮이, 면적 등을 재는 일'을 뜻한다.

05 경찰이 범죄 조직을 끈질기게 쫓아 일망타진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추적'이 어울린다. '추적'은 '도망하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음'을 뜻한다. '진공'은 '물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뜻한다. '일망타진'은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모조리 다 잡음을 이르는 말'이다.

06 첨단 무기들은 컴퓨터로 통제 또는 조절된다는 의미에서 '제어'가 어울린다. '제어'는 '기계나 설비 또는 화학 반응 등이 목적에 알맞은 작용을 하도록 조절함'을 뜻한다. '전도'는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을 뜻한다.

19회 고전 시가				121쪽
01 감흥	02 묘사	03 향유	04 ○	
05 X	06 X	07 반전	08 의인화	
09 심산공곡	10 만경창파	11 낙락장승		

01 작가가 여행에서 느낀 점을 글로 옮겼다는 의미로 '감흥'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감흥'은 '마음속 깊이 감동받아 일어나는 흥취'를 뜻한다. '여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뜻한다.

02 사실주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는 의미에서 '묘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묘사'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등을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을 뜻한다. '공명'은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을 뜻한다.

03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가사, 시조 등의 문학을 누리며 즐겼다는 의미이므로 '향유'가 적절하다. '향유'는 '누리어 가짐'을 뜻한다. '희롱'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을 뜻하는 말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05 '이다지'는 '이러한 정도로 또는 이렇게까지'라는 뜻이다. '영원히 계속되는 성질이나 능력'을 뜻하는 어휘는 '영속성'이다.

06 '은자'는 '산과 들에 묻혀 숨어 사는 사람 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사람'을 뜻한다. '예전에,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이나 연인을 부르던 말'은 '낭군'이다.

08 비행기는 공중으로 떠서 날아다니는 항공기이므로 공중을 의미하는 '허공'이 들어갈 수 있다. '허공'은 '텅 빈 공중'을 뜻한다.

09 용감무쌍한 사람을 호랑이의 용맹함에 빗대어 표현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비유'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비유'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이다.

10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므로 '행실이 아주 더럽고 나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금수'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11 잘살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망하니 세상일은 알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요지경'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요지경'은 '알쏭달쏭하고 묘한 세상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0 회	현대시	127쪽	
01 내력	02 장막	03 순응	04 암시
05 대조	06 유년	07 이승	08 허공
09 비유	10 금수	11 요지경	

21 회	고전 소설 1	133쪽	
01 X	02 X	03 ○	04 염려
05 물색	6 가약	07 시련	08 부호
09 선경	10 무릉도원	11 극락세계	

01~03 '심상'은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뜻한다.

04 주인공의 대사에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이 낄지시 표현되어 있었다는 의미로 '암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암시'는 '문학에서, 뜻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법'이다. '억압'은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을 뜻한다.

05 시험 감독관이 수험자의 얼굴과 수험표의 사진을 비교해 보며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대조'가 들어갈 수 있다. '대조'는 '둘 이상인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 갖고 다름을 검토함'을 뜻한다. '결실'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을 뜻한다.

06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청년이 옛 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겼다는 내용이므로 청년기보다 앞선 때인 '유년'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유년'은 '어린 나이나 때'를 뜻한다. '생기'는 '싱싱하고 힘찬 기운'을 뜻한다.

07 제시된 문장은 개똥밭에 굴러도 죽어서 저승에 가는 것보다 살아 있는 것이 낫다는 의미의 속담이므로 '이승'이 들어가야 한다. '이승'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한다.

01 '소저'는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이다.

02 '안위'는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은 '고초'이다.

04 소년이 부모님의 걱정 등을 뒤로하고 유학길에 올랐다는 의미이므로 '염려'가 어울린다.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을 뜻한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05 기업가가 공장 이전을 위해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거나 골랐다는 의미이므로 '물색'이 어울린다. '물색'은 '어떤 기준에 알맞은 사람이나 물건, 장소를 고르는 일'이다.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한다.

06 '배필'은 '부부로서의 짝'을 뜻한다.

07 '갈등'은 '침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등을 뜻한다.

08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01 조력자 02 책망 03 허구적 04 참상
 05 자취 06 향촌 07 혼사 08 원한
 09 예의염치 10 군신유의 11 부부유별

04 들판에 쌓여 있는 해골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전쟁의 끔찍함이나 비극적인 상황 등이므로 '참상'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참상'은 '비참하고 끔찍한 상태나 상황'을 뜻한다.

05 사건 직후 모습이나 흔적을 감추었던 용의자를 경찰이 수배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자취'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자취'는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뜻한다.

06 기차를 타고 한가로운 어느 장소의 작은 역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도착지는 도심과 떨어진 시골 마을이어야 내용이 자연스럽다. '향촌'은 '시골의 마을'이다.

10~11 '오륜(五倫)'은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로, 부자유친(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는 친애에 있음), 군신유의(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는 의리에 있음), 부부유별(남편과 아내 사이의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음에 있음), 장유유서(어른과 어린이 사이의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할 질서가 있음), 붕우유신(벗과 벗 사이의 도리는 믿음에 있음)을 이른다.

- 01 해방 02 소외 03 납득 04 해소
 05 갈망 06 ○ 07 X 08 ○
 09 ⊖ 10 ⊕ 11 ⊙

01~03 '순사'는 '일제 강점기에 둔, 경찰관의 가장 낮은 계급 또는 그 계급의 사람'을 뜻한다.

04 '해소'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을 뜻한다.

05 '갈망'은 '간절히 바램'을 뜻한다.

07 '넋두리'는 '불만을 길게 늘어놓으며 하소연하는 말'이다.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은 '주술'이다.

- 01~08 해설 참조 09 정서 10 사색
 11 추구 12 율화 13 몰입 14 독백

01~08

01 투					
02 영	03 탄	적		04 세	속
	식			태	
05 경					
외		07 사	08 고	무	인
06 감	회		난		

09 판소리는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우리 고유의 음악으로, 판소리에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감정 등이 배어 있다.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뜻하므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을 뜻한다.

10 현대인들은 인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므로 '사색'이 들어갈 수 있다. '사색'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짐'을 뜻한다. '은거'는 '①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② 예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던 일'을 뜻한다.

11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는 의미에서 '추구'가 들어갈 수 있다. '추구'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함'을 뜻한다. '의탁'은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을 뜻한다.

12 불쑥 치미는 무엇인가를 가라앉히려고 노력했다는 말로 보아 '율화'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율화'는 '마음속이 답답하여 일어나는 화'를 뜻한다.

13 과학자들이 전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깊이 파고들었다는 의미이므로 '몰입'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몰입'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뜻한다.

14 빈칸에는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어휘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독백'은 연극에서, '배우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행위 또는 그런 대사'를 뜻한다.

25회 극

157쪽

- 01 행적 02 관객 03 입시 04 ○
- 05 X 06 ○ 07 실마리 08 감독
- 09 이목구비 10 선풍도골 11 녹빈홍안

01 '면모'는 '① 얼굴의 모양 ②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또는 그 됨됨이'를 뜻한다.

02 '연출'은 '① 연극이나 방송극 등에서, 각본을 바탕으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도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일 또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②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만들어 냄'을 뜻한다.

03 '설정'은 '① 새로 만들어 정해 둠 ② 법률에서, 제한 물권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05 '희곡'은 '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 ②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대화를 기본 수단으로 하여 표현하는 예술 작품'이다.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배우가 하는 말'은 '대사'이다.

26회 화법 1

163쪽

- 01 사연 02 강연 03 공감 04 부각
- 05 연설 06 면담 07 세부 08 반론
- 09 일언반구 10 감언이설 11 중언부언

04 빈부 격차의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는 의미에서 '부각'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부각'은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을 뜻한다.

05 유세장은 정치권 후보자 등이 자기 의견 등을 선전하는 장소이므로 후보자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주장을 펼쳤다는 의미에서 '연설'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주의나 주장 또는 의견을 진술함'을 뜻한다.

06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이 들어가야 하므로 '면담'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면담'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 기함'을 뜻한다. '과반'은 '절반이 넘음'을 의미한다.

07 '세부'는 '자세한 부분'을 뜻한다. '발상'은 '어떤 생각을 개념 또는 그 생각'을 뜻한다.

08 '반대하여 말함'을 뜻하는 '반박'을 대신할 어휘로는 '반론'이 적절하다. '반론'은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등에 대하여 반박함'을 뜻한다. '설득'은 '상대편이 이쪽 편에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을 의미한다.

09 그가 한마디 의논도 없이 행사를 취소하였다는 내용으므로, '일언반구'라는 성어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일언반구'는 '아주 짧은 말을 이르는 말'이다.

10 일제가 독립투사를 회유하기 위해 썼던 방법이 들어가야 하므로 '감언이설'이 적절하다. '감언이설'은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뜻한다.

11 문장의 뒷부분에서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할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빈칸에는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중언부언'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을 뜻한다.

27회 화법 2

169쪽

- 01 X 02 ○ 03 X 04 유도
- 05 전반 06 취지 07 ① 08 ①
- 09 ㉠ 10 ㉡ 11 ㉢

01 '청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고, '화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03 '편협'은 '①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 ② 땅 등이 좁음'을 뜻한다.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함'을 뜻하는 말은 '협상'이다.

04 광고는 소비자의 실질적 구매를 이끌어 내는 매체라는 의미에서 '유도'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유도'는 '사람이나 물건을 목적인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을 뜻한다.

05 산업 혁명은 인간 생활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의미에서 '전반'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전반'은 '어떤 일이나 부문에 대하여 그것에 관계되는 전체 또는 통틀어서 모두'를 뜻한다.

06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사람을 기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므로 '취지'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취지'는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을 뜻한다.

07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래에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의미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②의 뜻은 주로 '탁 트인 전망', '전망이 좋다/나쁘다' 등과 같이 쓰인다.

08 근무 시간에 외출할 때는 행선지를 밝혀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 01 편향 02 보편성 03 매체 04 개선
 05 도입 06 쟁점 07 본질 08 현안
 09 ㉠ 10 ㉡ 11 ㉢

04 노조는 노동 조건의 개선 및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등을 고쳐 더 좋게 만듦’을 뜻한다.

05 최첨단 기술이 국내에 들어와서 통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도입’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도입’은 ‘기술, 방법, 물자 등을 끌어들이’를 뜻한다.

06 ‘부제’는 ‘서적, 논문, 문예 작품 등의 제목에 덧붙여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을 뜻한다.

07 ‘실태’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또는 실제의 모양’을 뜻한다.

08 ‘방안’은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을 뜻한다.

11 ‘모순’은 중국 초(楚)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 는 데서 유래한 성어이다.

- 01~07 해설 참조 08 맥락 09 어근
 10 사동 11 망운지정 12 불초 13 풍수지탄

01~07

고	구	07 관	06 겹	서	유
술	개	형	모	문	조
03 부	사	격	제	동	장
시	방	언	음	05 상	위
04 어	미	반	02 다	의	어
01 원	용	간	사	어	화

08 ‘객체’는 ‘문장 내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뜻한다.

09 ‘어간’은 ‘활용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10 ‘시제’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난 시간 선상의 위치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를 뜻한다.

13 ‘풍수지탄’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樹欲靜而風不止], 자식은 효도하려 하나 아버지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子欲養而親不待].’라는 「한시외전」의 글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 01~06 해설 참조 07 X 08 〇
 09 〇 10 ㉡ 11 ㉠ 12 ㉢

01~06

01 표	기			02 합	
준				성	
어		03 표	제	어	
	04 파				
	열			06 접	사
05 유	음	화		속	

07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 등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이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뜻하는 어휘는 ‘형태소’이다.

08 ‘축약’은 ‘언어에서,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소나 음절이 한 음소나 음절로 되는 현상’으로, ‘좋고’가 ‘조코’로, ‘국화’가 ‘구과’로, ‘되+어’가 ‘돼’로 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09 ‘탈락’은 ‘언어에서,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가+아서’가 ‘가서’로, ‘울+는’이 ‘우는’이 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11 ‘단사표음’은 공자의 제자 안희가 너무 가난해서 대나무 그릇에 담긴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을 마시면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고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 성어이다.

어휘력 다지기

01 회 논리 1

2쪽

- 01 보완 02 가설 03 견해 04 기반
05 소지 06 개연성 07 반박 08 당위성
09 흥망성쇠 10 길흉화복

01 신제품은 기존 제품의 약점을 없애거나 고쳐서 더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보완'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보완'은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완전하게 함'을 뜻한다.

02 과학자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어떤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한 것이므로 '가설'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정'을 뜻한다.

03 불교의 본토는 인도라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생각이나 주장이라는 내용으므로 '견해'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견해'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뜻한다.

04 판소리가 형성된 바탕에 관한 내용으로, '기반'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뜻한다. 또한, 판소리가 전승되는 설화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는 배경지식을 함께 알아두면 좋다.

05 신용 카드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에 따른 불편 등을 덜어 준다는 내용으므로 '소지'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소지'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 일'이다.

06 이번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므로 '개연성'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개연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을 뜻한다.

07 발언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는 의미에서 '반박'이 어울린다. '반박'은 '어떤 의견, 주장, 논설 등에 반대하여 말함'을 뜻한다. '반영'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을 나타냄'을 뜻한다.

08 시민들이 침략 전쟁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했다는 의미에서 '당위성'이라는 어휘가 들어가야 어울린다.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을 뜻한다. '모호성'은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운 말의 성질'을 의미한다.

09 국민의 화합이 한 나라의 존속과 멸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므로 '흥망성쇠'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흥망성쇠'는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을 뜻한다.

10 점을 친다는 것은 앞날의 운수를 판단하는 일이므로 빈칸에는 앞날의 좋고 나쁨을 뜻하는 '길흉화복'이라는 성어가 적절하다. '길흉화복'은 '길흉과 화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02 회 논리 2

3쪽

- 01 실정 02 측면 03 재해석 04 추론
05 전제 06 임의 07 ② 08 ①
09 권선징악 10 인생무상

04~06 '예측'은 '미리 헤아려 짐작함'을 뜻한다.

07 노사가 화합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기업이 번성하거나 쇠퇴한다는 의미이므로 ②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노사'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①의 뜻은 주로 '여부가 있다/없다'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8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①의 뜻은 보편적인 대상에 두루 적용되는 반면, ②의 뜻은 특별히 예술 작품 등을 받아들여 즐긴다는 의미로 쓰인다.

09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내용은 고전 소설의 보편적인 주제이다. '권선징악'은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함'을 뜻한다.

10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된 노인이 느낀 감정이므로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인생의 허무함 등에 관한 성어가 어울린다. '인생무상'은 '인생이 덧없음(헛되고 허전함)'을 뜻한다.

03 회 철학 1

4쪽

- 01 상이 02 관념 03 극복 04 X
05 ○ 06 ○ 07 ① 08 ①
09 전전반측 10 신신당부

01 두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의견'을 수식할 수 있는 어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상이'는 '서로 다름'을 뜻한다.

02 그와의 대화를 통해 낯은 생각 등이 깨졌다는 의미이므로 '관념'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관념'은 '어떤 일에 대한 견해나 생각'을 뜻한다.

03 불경기를 이겨 내기 위해 인원 감축을 단행한 것이므로 ‘극복’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극복’은 ‘악조건이나 고생 등을 이겨 냄’을 뜻한다. ‘단행’은 ‘결단하여 실행함’을 뜻한다. ‘사후’는 ‘죽고 난 이후’를 의미한다.

04 ‘경세론’은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일에 관해 논리적으로 일반화한 체계’이다.

05 ‘사상’은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을 뜻하므로 ‘생각’이나 ‘사고’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07 예의와 배려를 갖춘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①의 뜻은 ‘근본 있는 집안’, ‘근본이 좋은 사람’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이고, ②의 뜻은 ‘근본 원칙’, ‘근본 원인’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8 땅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는 자연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①의 뜻은 ‘자연의 섭리’, ‘조화의 섭리’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이고, ②의 뜻은 주로 ‘신의 섭리’와 같은 형태로 쓰인다.

09 친구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이므로, ‘전전반측’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전전반측’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뜻한다.

10 엄마가 누나에게 연락을 자주 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므로, ‘신신당부’가 들어가야 어울린다. ‘신신당부’는 ‘거듭하여 간곡히 하는 당부’를 뜻한다.

04 뛰어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이 들어가야 하므로 ‘지성’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지성’은 ‘지각된 것을 정리하고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 작용’이다. ‘겸비’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를 뜻한다.

05 어떤 사건이 사람들에게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이므로 ‘인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인지’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을 뜻한다.

06 한류 열풍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치가 올라갔다는 의미이므로 ‘위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위상’은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이다. ‘지향’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을 뜻한다.

07 ‘형체’는 ‘물건의 생김새나 그 바탕이 되는 몸체’이다.

08 ‘의존’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을 뜻한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이다.

09 연회가 난장판이 되면 일반적으로 주인이 손님들에게 사과하므로 ‘고두사죄’가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고두사죄’는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뵈’를 뜻한다.

10 의견이 다른 두 사람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역지사지’는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을 뜻한다.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함’을 의미한다.

04회 철학 2				5쪽
01 이상	02 의도	03 직관	04 지성	
05 인지	06 위상	07 형체	08 의존	
09 고두사죄	10 역지사지			

01 ‘이념’은 ‘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② 철학에서, 순수한 이성에 의하여 얻어지는 최고 개념’을 뜻한다.

02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03 ‘인식’은 ‘①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앎 ② 자극을 받아 들이고, 저장하고, 내보내는 일련의 정신 과정’을 뜻한다.

05회 역사				6쪽
01 경전	02 재현	03 무렵	04 조정	
05 제도	06 풍토	07 중화	08 ☉	
09 ㉠	10 ㉡			

01 ‘사서오경(四書五經)’은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논어』, 『맹자』, 『중용』, 『대학』과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를 이르는 말’이다. ‘경전’은 ‘성현이 지은, 또는 성현의 말이나 행실을 적은 책’이다.

02 백여 년 전 농촌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내용이므로 ‘재현’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재현’은 ‘다시 나타냄’을 뜻한다.

03 발해가 쇠퇴할 즈음에 거란족이 부흥하였다는 의미이므로 ‘무렵’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무렵’은 ‘대략 어떤 시기와 일치하는 즈음’을 뜻한다.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을 뜻한다. ‘세기’는 ‘백 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이다.

04 ‘파발꾼’은 조선 후기에 공문을 전하던 사람으로, 변방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한 대상으로는 ‘조정’이 어울린다. ‘조정’은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곳 또는 그런 기구’를 뜻한다. ‘문헌’은 ‘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으로, 파발꾼이 직접 공문을 전달한 대상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05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 중의 하나로,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다.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등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뜻한다. ‘관직’은 ‘공무원 또는 관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정한 직무나 직책’을 의미한다.

06 ‘풍토’는 ‘어떤 지역의 기후와 토지의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08 ‘후안무치’는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음’이라고 풀이한다.

06회 예술		7쪽	
01 감상	02 영감	03 조형	04 ②
05 ①	06 ○	07 X	08 연하고질
09 천석고황	10 함포고복		

01~03 ‘질감’은 ‘재질(材質)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을 뜻한다.

04 채용 결과 발표에 따라 지원자들의 얼굴에 기분이 나타난 것이므로 ②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①의 뜻은 ‘조명의 명암’, ‘명암이 뚜렷한 사진’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5 인간의 활동 방식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②의 뜻은 주로 문학·예술 작품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딕 양식’,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7 ‘근경’은 ‘사진이나 그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찍히거나 그려진 대상’을 뜻한다. 제시된 뜻은 ‘원경’에 관한 내용이다.

08 ‘연하고질’은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질이나 버릇’을 뜻한다. ‘고질(병)’은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이다.

09 ‘고황(膏育)’은 심장과 횡격막의 사이로, 이 부분에 병이 들면 낫기 어렵다고 한다.

07회 법률 1		8쪽	
01 개정	02 법규	03 권리	04 보장
05 개입	06 공익	07 ①	08 ②
09 천재지변	10 문전걸식		

01 ‘공포’는 ‘①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②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뜻한다.

02 ‘권익’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뜻한다.

03 ‘규제’는 ‘① 규칙·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못 넘게 막음 ②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을 뜻한다.

04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장’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보장’은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을 뜻한다.

05 공적인 일에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 ‘개입’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을 뜻한다.

06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리사욕과 반대되는 의미의 것이어야 하므로 ‘공익’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공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뜻한다.

07 문서를 파악할 때는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②의 뜻은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그 의미를 밝힌다는 뜻으로, ‘규정을 내리다’,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다’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8 폭우가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에도 선수들이 이를 무릅쓰고 훈련을 나간 것이므로 ②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①의 뜻은 주로 규칙이나 법령 등을 강제로 시행할 때 쓰인다.

09 여러 가지 사고 원인 중 사람에 의한 재난과 반대되는 의미의 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천재지변’은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한 재앙’이다.

10 사업에 실패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그의 경제적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문전걸식’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음’을 뜻한다.

08회 법률 2

9쪽

- 01 의결 02 분쟁 03 부과 04 시정
- 05 성립 06 X 07 ○ 08 ⊕
- 09 ⊖ 10 ⊕

04 청렴한 관리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았다는 의미에서 '시정'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시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을 뜻한다. '이행'은 '실제로 행함'을 뜻한다. 청렴한 관리가 잘못된 관행을 실제로 행하였다는 말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05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조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성립'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성립'은 '일이나 관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짐'을 뜻한다. '양도'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을 의미하는 어휘로,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을 남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은 이치상 적절하지 않다.

06 '사례'는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를 뜻한다. '법률'이나 '규정' 등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나 안'을 뜻하는 어휘는 '사안'이다.

09 '백수지탄'은 중국 은(殷)나라의 기자(箕子)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한 뒤에 그 옛터를 지나다가 보리만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성어이다.

09회 법률 3

10쪽

- 01 정책 02 주권 03 제한 04 촉진
- 05 효력 06 조치 07 조정 08 제정
- 09 각골난망 10 사은숙배

01 '조항'은 '법률이나 규정 등의 조목이나 항목'을 뜻한다.

02 '조례'는 '① 조목조목 적어 놓은 규칙이나 명령 ②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뜻한다.

03 '처벌'은 '형벌에 처함 또는 그 벌'을 뜻한다.

04 경제 상황이 좋으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올라가므로 '촉진'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촉진'은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을 뜻한다.

05 진통제의 약효가 떨어지자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미이므로 '효력'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효력'은 '약 등을 사용한 후에 얻는 보람'을 뜻한다.

06 수해 지역에 전염병 방지를 위한 대책을 행하였다는 내용 이므로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 '조치'는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을 뜻한다. '방역'은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는 일'이고, '해제'는 '묵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등을 풀어 자유롭게 함'을 뜻하므로 '방역 해제'라는 표현은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행위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07 '이견'이라는 말로 보아 실무자 간의 서로 다른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회의가 열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정'은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을 뜻한다. '점유'는 '물건이나 영역, 지위 등을 차지함'을 뜻한다.

08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져서 노동자들의 조합 운동이 합법화 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제정'이 들어갈 수 있다. '제정'은 '제도나 법률 등을 만들어서 정함'을 뜻한다. '제재'는 '①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②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등을 행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문장 뒤쪽에서 '합법화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제재'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10회 경제 1

11쪽

- 01 물가 02 독점 03 대금 04 X
- 05 ○ 06 대체 07 금융 08 금의환향
- 09 자수성가 10 입신양명

01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가져오는 요인이 앞부분에 나와야 하므로 물가가 올랐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물가'는 '물건의 값'을 뜻하고, '상승'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감'을 뜻한다.

02 기업이 공급 물량을 줄여 물건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독점'이라는 어휘가 들어갈 수 있다. '독점'은 '경제 용어로,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함'을 뜻한다.

03 물품과 관련하여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는 것은 물품의 값으로 지불할 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금'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대금'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이다.

04 '배상'은 '법률상에서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뜻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관계 기관에 냄'을 뜻하는 말은 '납부'이다.

06 과학자들이 석유를 대신할 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대체'가 문장에 어울린다. '대체'는 '다른 것으로 대신함'을 뜻한다. '보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을 의미한다.

07 통화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돈이 오가는 시장에 대한 정책임을 알 수 있으므로 '금융'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금융'은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르는 말이다. '금전'은 '화폐를 의미하는 경제 용어'로, '금전의 가치', '금전 관계', '금전 교환'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금전 시장'이라는 표현은 잘 쓰이지 않는다.

08 국민들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를 반겼다는 내용으로 보아 선수가 자랑스럽게 돌아왔다는 의미의 '금의환향'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금의환향'은 '출세를 하여 고향에 돌아가거나 돌아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9 힘든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기업가가 된 사람에 관한 내용이므로 '자수성가'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자수성가'는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키고 재산을 모음'을 뜻한다.

10 높은 관직에 올라 이를 수 있는 포부와 관련된 말이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입신양명'은 '출세하여 이름을 세상에 떨침'을 뜻한다.

11 회 경제 2				12쪽
01 이윤	02 지출	03 원금	04 상승	
05 자금	06 한계	07 창출	08 ㉠	
09 ㉡	10 ㉢			

01~03 '외환'은 '외국과의 거래를 결제할 때 쓰는 환어음'을 의미한다.

05 '자금'은 '사업을 경영하는 데 쓰는 돈'을 뜻하기도 한다.

12 회 정치·문화				13쪽
01 대중	02 분류	03 권력	04 통합	
05 수단	06 X	07 ㉠	08 억만창생	
09 경천근민	10 치군택민			

01 웅변가의 연설이 많은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이므로 '대중'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대중'은 '수많은 사람의 무리'를 뜻한다. '집합'은 '사람들이 한곳으로 모임'을 의미한다.

02 회화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눈 내용이므로 '분류'라는 어휘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분류'는 '종류에 따라서 가름'을 뜻한다. '투입'은 '㉠ 던져 넣음 ㉡ 사람이나 물자, 자본 등을 필요한 곳에 넣음'을 의미한다.

03 '삼권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세 조직에 나누어 놓은 것이므로 '권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을 뜻한다. '국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장면이나 형편'을 의미한다.

05 '수단'은 '일을 처리하여 나가는 솜씨와 껍'을 뜻하기도 한다.

06 '유형'은 '성질이나 특징 등이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을 뜻한다.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의 층'을 뜻하는 말은 '계층'이다.

13 회 생명 과학·의학				14쪽
01 미생물	02 젖산	03 병원성	04 면역	
05 분열	06 이식	07 ㉠	08 ㉡	
09 백년가약	10 죽마고우			

04 스트레스는 몸의 좋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의미여야 하므로 '면역'이라는 어휘가 적절하다. '면역'은 '몸속에 들어온 병원(病原) 미생물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여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뜻한다.

05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고 나면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을 거듭하는데, 이를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분열'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개체가 둘 이상으로 나뉘어 불어나는 무성 생식'을 뜻한다.

06 심장을 기증하는 사람에 비해 기증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는 내용으로, 빈칸에는 심장을 기증받아 할 수 있는 일과 관련된 어휘가 들어가야 한다. '이식'은 '살아 있는 조직이나 장기를 생체로부터 떼어 내어, 같은 개체의 다른 부분 또는 다른 개체에 옮겨 붙이는 일'이다.

07 생식 세포가 수정하면 새로운 독립된 생물체가 생겨난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08 산미 증식 계획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쌀 생산을 늘려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지로 삼으려 했던 정책이므로 ①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②의 뜻으로 쓰일 때는 ‘세균 증식’, ‘자가 증식’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9 두 남녀가 오랜 연애 끝에 마침내 혼인하였다는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백년가약’이라는 성어가 적절하다. ‘백년가약’은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함께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다.

10 삼십 년 만에 누군가를 만나 아이처럼 기뻐하였다면 어린 시절 알고 지낸 무척 반가운 사람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죽마고우’는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란 벗’을 뜻한다.

14회		물리학		15쪽	
01 양자	02 입자	03 항력	04 흡수		
05 마찰	06 방출	07 밀도	08 ㉠		
09 ㉡	10 ㉢				

01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역학적 기본량’이다.

02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03 ‘부력’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하여 중력(重力)에 반하여 위로 뜨려는 힘’이다.

06 ‘비축미’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갖추어 모아 둔 쌀’로, 이재민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비축미를 풀었다는 내용이 되어야 자연스러우므로 ‘방출’이 들어가야 어울린다. ‘방출’은 ‘비축하여 놓은 것을 내놓음’을 뜻한다. ‘유지’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하여 지탱함’을 뜻하는 말로, 비축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이재민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07 도시의 인구가 농촌 지역보다 훨씬 뻣뻣하다는 의미에서 ‘밀도’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밀도’는 ‘뻣뻣이 들어선 정도’를 뜻한다. ‘질점’은 ‘물체의 크기를 무시하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점’을 뜻하므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08 ‘불사이군’은 중국 연(燕)나라가 제(齊)나라를 치려 할 때, 연나라 장수가 제나라의 왕축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 회유하였으나 왕축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거절한 데서 유래한 성어이다.

15회		화학·지구 과학		16쪽	
01 반응	02 분해	03 침투	04 용해		
05 총돌	06 공전	07 관측	08 삼춘가절		
09 엄동설한	10 춘하추동				

01 주가는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움직인다는 의미로 ‘반응’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반응’은 ‘자극에 대응하여 어떤 현상이 일어남’을 뜻한다.

02 고장 난 기계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결합된 기계를 풀어야 하므로 ‘분해’가 들어갈 수 있다. ‘분해’는 ‘여러 부분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을 그 낱낱으로 나눔’을 뜻한다.

03 화농성 세균이 몸속에 들어와 손톱 주위가 부어오른 것이므로 ‘침투’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침투’는 ‘세균이나 병균 등이 몸속에 들어옴’을 뜻한다. ‘효소’는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되어 생체 속에서 행하여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의 촉매 구실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08 꽃이 만발하는 시기는 따뜻한 봄날이다. ‘삼춘가절’은 ‘봄철 석 달의 좋은 시절’을 뜻한다.

09 누비옷은 천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옷으로, 보통 추위를 막기 위해 입는다. 가난한 백성들은 누비옷을 입어야 하는 날씨에도 그것을 입지 못하고 추위를 견뎌 냈다는 내용으므로, ‘엄동설한’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엄동설한’은 ‘눈 내리는 깊은 겨울의 심한 추위’이다.

10 자연은 계절에 따라 그 색과 모습이 달라진다. ‘춘하추동’은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계절’을 뜻하는 성어이다.

16회		기술 1		17쪽	
01 갱신	02 모듈	03 가상	04 X		
05 ㉠	06 교차	07 관성	08 ㉢		
09 ㉡	10 ㉣				

01 ‘도달’은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름’을 뜻한다.

02 ‘단자’는 ‘전기 기계나 기구 등에서, 전력을 끌어들이거나 보내는 데 쓰는 회로의 끝부분’이다.

03 ‘구조’는 ‘㉠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렇게 이루어진 열개 ㉡ 일정한 설계에 따라 여러 가지 재료를 엮어서 만든 물건’을 뜻한다.

04 '대역'은 '어떤 쪽으로써 정해진 범위로, 최대 주파수에서 최저 주파수까지의 구역'을 뜻한다. '권한이나 직책, 능력 등에 따라 일정한 분야에서 하는 역할'을 뜻하는 말은 '기능'이다.

06 동해안은 온도가 차가운 해류와 따뜻한 해류가 만나는 좋은 어장이라는 의미에서 '교차'가 들어가면 어울린다. '교차'는 '서로 엇갈리거나 마주침'을 뜻한다. '구현'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로 나타나게 함'을 뜻한다.

07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은 앞으로 나가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관성'은 '물체가 밖의 힘을 받지 않는 한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의 상태를 지속하려는 성질'이다. '계수'는 '하나의 수량을 여러 양의 다른 함수로 나타내는 관계식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 상수'를 뜻한다.

09 '대경실색'은 중국 한(漢)나라 창읍왕(昌邑王) 유하(劉賀)가 황제에 즉위하여 주색과 향연을 일삼았는데, 이를 본 곽광(霍光)이 여러 대신을 불러 황제 폐위를 논의하니 대신들이 몹시 놀라며 수궁하였다는 데서 유래한 성어이다.

17회	기술 2	18쪽	
01 발색	02 오차	03 비례	04 인공
05 신호	06 연산	07 영역	08 사면초가
09 아수라장	10 인산인해		

01~03 '영상'은 '① 빛의 굴절이나 반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물체의 상(像) ② 영사막이나 브라운관, 모니터 등에 비추어진 상'을 뜻한다.

04 목재를 말리는 방법으로 먼저 제시된 '자연 건조'와 반대되거나 대등한 의미의 건조 방법이 나와야 하므로 '인공'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인공'은 '사람의 힘으로 자연에 대하여 가공하거나 작용을 하는 일'을 뜻한다.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뜻하는 어휘이다.

05 항공기의 기장은 착륙 전에 관제탑에서 보내는 정보나 지시를 확인해야 하므로 '신호'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신호'는 '일정한 부호, 표지, 소리, 몸짓 등으로 특정한 내용 또는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시함 또는 그렇게 하는 데 쓰는 부호'를 뜻한다. '압력'은 '① 두 물체가 접촉면을 경계로 하여 서로 그 면에 수직으로 누르는 단위 면적에서의 힘의 단위 ② 권력이나 세력에 의하여 타인을 자기 의지에 따르게 하는 힘'을 뜻한다.

08 신라와 당나라의 협공으로 백제가 궁지에 몰렸다는 내용 이므로 '사면초가'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사면초가'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이다. 초(楚)나라의 항우가 사면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가 이미 항복한 줄 알고 놀랐다는 데서 유래한 성어이다.

09 갑자기 울린 공습경보로 온 시내가 혼란에 빠졌다는 의미 이므로 '아수라장'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아수라장'은 '싸움이나 그 밖의 다른 일로 큰 혼란에 빠진 곳 또는 그런 상태'를 뜻한다.

10 유명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인산인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인산인해'는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었다는 뜻으로,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모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18회	기술 3	19쪽	
01 프레임	02 측량	03 전파	04 X
05 ○	06 탑재	07 차단	08 이해타산
09 좌고우면	10 삼매경		

04 '전송'은 '글이나 사진 등을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먼 곳에 보냄'을 뜻한다.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는 일'을 뜻하는 어휘는 '전도'이다.

06 과학자들이 우주선에 적외선 망원경을 실었다는 의미에서 '탑재'가 들어가면 적절하다. '탑재'는 '배, 비행기, 차 등에 물건을 실음'을 뜻한다.

07 방음벽은 소리가 새어 나가거나 새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벽이므로 '차단'이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어울린다. '차단'은 '액체나 기체 등의 흐름 또는 통로를 막거나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함'을 뜻한다.

19회	고전 시가	20쪽	
01 풍월	02 희롱	03 공명	04 빈천
05 적막	06 여생	07 체념	08 배산임수
09 망망대해	10 청풍명월		

01~03 '강호'는 '① 강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② 예전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 등이 현실을 도피하여 생활하던 시골이나 자연 ③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한다.

04 부유한 사람이나 그와 반대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내용이므로 '부유'와 반대되는 의미의 '빈천'이 들어가야 어울린다. '빈천'은 '가난하고 천함'을 뜻한다. '향유'는 '누리어 가짐'을 뜻하는 어휘이다.

05 '홀로 남겨진 듯한'이라는 말을 통해 청년이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적막'이라는 어휘가 어울린다. '적막'은 '의지할 데 없이 외로움'을 뜻한다. '홍진'은 '수레와 말이 일으키는 먼지를 뜻하는 말로,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06 공직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남은 인생을 조용하게 보냈다는 의미이므로 '여생'이 들어가야 적절하다. '여생'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뜻한다.

07 여인의 표정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담담해졌다는 의미에서 '체념'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을 뜻한다.

08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을 등져서 추위를 막고, 물을 마주하여 용수(用水)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남향으로 집을 짓기를 선호하였다. '배산임수'는 '땅의 형세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에 면하여 있음'을 뜻한다.

09 '선원'과 '표류'라는 말로 보아 조난을 당한 뱃사람들이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다 구조되었다는 내용이므로 '망망대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망망대해'는 '한없이 크고 넓은 바다'를 뜻한다. '표류'는 '물 위에 정처 없이 흘러감'을 의미한다.

10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가 자연을 벗 삼으며 세월을 보냈다는 내용이므로 '청풍명월'이라는 성어가 어울린다.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뜻한다.

20 회 현대시		21 쪽	
01 생기	02 결핍	03 동질감	04 결실
05 잠재력	06 억압	07 자부심	08 ㉠
09 ㉡	10 ㉢		

01 '이승'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뜻한다.

02 '속성'은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이다.

03 '절박감'은 '일이 급하여 몹시 긴장된 느낌'이다.

04 '결실'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또는 그런 성과'라는 뜻도 있다.

21 회 고전 소설 1		22 쪽	
01 벌미	02 몰락	03 염치	04 ㉡
05 ㉢	06 양상	07 계책	08 천지개벽
09 별세계	10 이상향		

04 동생이 화가 나서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어깃장을 놓다'라는 말은 '순순히 따르지 않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뺨대다'라는 뜻이다.

05 백화점에서 특설 매장을 설치할 만큼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의 뜻은 '결정적인 대목', '주목할 만한 대목' 등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06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의미이므로 '양상'이 들어가야 어울린다.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뜻한다.

07 장군의 절묘한 피로 적군을 물리쳤다는 내용이므로 '계책'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계책'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생각해 낸 피나 방법'을 뜻한다.

08 '천지개벽'은 원래 하나의 혼돈체였던 하늘과 땅이 서로 나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중국 고대의 사상에서 유래한 성어이다. 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 큰 변혁이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22 회 고전 소설 2		23 쪽	
01 화답	02 항공	03 유배	04 처지
05 희생	06 행색	07 황천	08 ㉣
09 ㉤	10 ㉥		

01~03 '혼백'은 '사람의 몸에 있으면서 몸을 거느리고 정신을 다스리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몸이 죽어도 영원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뜻한다.

04 마을이 수몰되어 가족이 타향살이할 상황에 놓였다는 내용이므로 '처지'가 들어가야 어울린다. '수몰'은 '물속에 잠김'을 뜻하고, '타향살이'는 '자기 고향이 아닌 고장에서 사는 일'을 의미한다. '처지'는 '처하여 있는 사정이나 형편'을 이르고, '차취'는 '어떤 것이 남긴 표시나 자리'를 뜻한다.

05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희생에 관한 내용임을 유추할 수 있다. '희생'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등을 바치거나 버림'을 뜻한다. '한탄'은 '원통하거나 누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을 뜻한다.

06 '행실'은 '실지로 드러나는 행동'을 뜻한다.

07 '향촌'은 '시골의 마을'이다.

08~10 '오륜(五倫)'은 '유학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도리'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을 이른다.

23회		현대 소설		24쪽	
01 회상	02 비참	03 해체	04 습격		
05 반감	06 짐작	07 안간힘	08 철천지한		
09 함분축원	10 대성통곡				

01 '실상'은 '① 실제의 상태나 내용 ② 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라는 뜻이다.

02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을 뜻한다.

03 '해소'는 '①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림 ② 어떤 단체나 조직 등을 없애 버림'을 뜻한다.

24회		수필		25쪽	
01 은거	02 체면	03 영화	04 ○		
05 X	06 궁핍	07 신념	08 혈혈단신		
09 고립무원	10 고침단금				

01~03 '감회'는 '지난 일을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회포'를 뜻한다.

05 '행여'는 '어쩌다가 혹시'라는 뜻이다.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을 뜻하는 어휘는 '의탁'이다.

06 탐관오리가 백성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으면 백성의 생활이 가난해지므로 '궁핍'이라는 어휘가 들어가면 문맥에 어울린다. '궁핍'은 '몹시 가난함'을 뜻하고, '수탈'은 '강제로 빼앗음'을 뜻한다.

07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이나 믿음 등을 굳게 지켰다는 내용이므로 '신념'이 들어가면 적절하다.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다.

08 '홀홀단신'은 '혈혈단신'의 잘못된 표현이다.

25회		극		26쪽	
01 전개	02 수난	03 궁리	04 전환		
05 진위	06 계기	07 관습	08 ⊖		
09 ⊕	10 ⊕				

04 '~에서 ~로'라는 표현을 통해 앞의 내용에서 뒤의 내용으로 상태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교통 정책이 자동차 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므로 '전환'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전환'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뜻한다. '인용'은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씬'을 뜻한다.

05 오랜 조사 끝에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었다는 내용이므로 '진위'라는 어휘가 들어갈 수 있다. '진위'는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행적'은 '행위의 실적(實績)이나 자취'를 뜻하고, '여부'는 '그러함과 그러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므로 '행적 여부'라는 표현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06 '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를 뜻한다.

07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다. '공허'는 '① 아무것도 없이 텅 빈 ② 실속이 없이 헛됨'을 뜻한다.

26회		화법 1		27쪽	
01 논지	02 발언	03 동조	04 X		
05 ○	06 담화	07 대책	08 만단정화		
09 언중유골	10 촌철살인				

01~03 '과장'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불려서 나타냄'을 뜻한다.

04 '보도'는 '대중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거나 그 소식'을 뜻한다. '상대편이 이쪽 편'의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을 뜻하는 어휘는 '설득'이다.

06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통해 개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담화’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담화’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말’이다. ‘사연’은 ‘편지나 말의 내용’을 뜻하는 어휘이다.

07 농민들이 흉수 피해에 대처할 계획이나 방법을 요구하였다는 의미에서 ‘대책’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대책’은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뜻한다. ‘반론’은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등에 대하여 반박함 또는 그런 논설’을 뜻한다.

27회 화법 2		28쪽	
01 용이	02 토론	03 희소성	04 참여
05 환기	06 중점	07 적합	08 상사일념
09 온고지정	10 일일삼추		

04 시청자가 직접 관계하여 진행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의미에서 ‘참여’가 들어가면 자연스럽다.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을 뜻한다. ‘청유’는 ‘어떠한 행동 등을 같이 할 것을 요청함’을 뜻하는 어휘로, 빈칸에 들어가기에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다.

05 정부에서 새 정책에 대한 홍보 행사를 마련했다는 것은 해당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므로 ‘환기’가 들어가면 문맥에 적절하다. ‘여론’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뜻하고, ‘환기’는 ‘주의나 여론, 생각 등을 불러일으킴’을 의미한다. ‘의의’는 ‘① 말이나 글의 속뜻 ② 어떤 사실이나 행위 등이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를 뜻한다.

06 감독이 수비보다 공격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의미에서 ‘중점’이 들어가면 어울린다. ‘중점’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을 뜻한다.

07 오동나무는 장롱이나 거문고를 만들기에 알맞다는 내용이므로 ‘적합’이 들어가야 어울린다. ‘적합’은 ‘일이나 조건 등에 꼭 알맞음’을 뜻한다.

10 ‘일일삼추’의 ‘추(秋)’는 원래 ‘가을’을 뜻하는 말로, 가을은 1년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1년’을 의미하는 말로도 쓰인다.

28회 작문		29쪽	
01 선별	02 개요	03 문맥	04 조화
05 타당성	06 제시	07 수집	08 취사선택
09 일맥상통	10 선경후정		

01~03 ‘입론’은 ‘의론(議論)하는 취지나 순서 등의 체계를 세움 또는 그 의론’을 뜻한다.

06 ‘제시’는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임’이라는 뜻도 있다.

29회 문법·어법 1		30쪽	
01 어간	02 안긴문장	03 고유어	04 ○
05 ○	06 X	07 X	08 슬하
09 반포지호	10 혼정신성		

06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를 뜻하는 어휘이다. ‘-시-’, ‘-읍-’ 등과 같이 높임법에 관한 것과 ‘-았-’, ‘-는-’, ‘-더-’, ‘-겠-’ 등과 같이 시제와 동작의 양태에 관한 것이 있다.

07 ‘구개음화’는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ㅌ’이 ‘ㅊ’이 되는 현상이다. ‘두 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뒤의 모음이 앞 모음의 영향으로 그와 가깝거나 같은 소리로 되는 언어 현상’을 뜻하는 말은 ‘모음 조화’이다. ‘구개음화’의 예로는 ‘굳이[구지]’, ‘굳히다[구치다]’ 등이 있고, ‘모음 조화’의 예로는 ‘알록달록’, ‘얼룩덜룩’ 등이 있다.

30회 문법·어법 2		31쪽	
01 첨가	02 호응	03 파생	04 종결
05 품사	06 음운	07 체언	08 안분지족
09 안빈낙도	10 현순백결		

01 ‘논일’은 ‘노닐’로 발음하지 않고, 중간에 ‘ㄴ’을 덧붙여 ‘논닐’로 발음해야 한다. 이처럼 이미 있는 것에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현상을 ‘첨가’라고 한다. ‘첨가’는 ‘이미 있는 것에 덧붙이거나 보탬’을 뜻한다.

02 ‘앞에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따라오는 일’을 ‘호응’이라고 한다.

03 ‘뺨개’는 ‘뺨-’이라는 실질 형태소와 ‘-개’라는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실질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것’을 ‘파생’이라고 한다.

04 '접속'은 '① 서로 맞대어 이음 ②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와 기억 장치 모듈 사이를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 회로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뜻한다.

05 '표기'는 '① 적어서 나타냄 또는 그런 기록 ② 문자나 음성 기호로 언어를 표시함'을 의미한다.

06 '음절'은 '하나의 종합된 음의 느낌을 주는 말소리의 단위'로, 몇 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다. '물'과 '불'을 구별해주는 'ㄹ'과 'ㅂ' 등을 '음운'이라 하고, '아침'에서 '아'와 '침'을 '음절'이라 한다.

07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